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찬46/새31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고석민 장로 2부/김교식 장로 3부/임동익 장로 4부/이주원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내 영혼이 은총입어(작곡 한지현)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가랴 2:1-1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2:13-17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4) 스가랴 강해 성곽 없는 성읍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33) 소비나 헌신이나?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찬204/새288장), 주의 이름 송축하리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2023년 주제가)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엔진 소리와 복된 소리

Engine Sound and Blessed Soun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한 번은 부부 동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함께 있던 참가자 중 한 분이 자기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으면 희열이 느껴진다고 얘기 해서, ‘참 특이한 분도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자동차 엔진 소리는 머플러를 통해서 나는 참기 어려운 소음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 제 차의 머플러에 구멍이 나서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너무나 큰 소리가 나서 방귀 귀고 다니는 차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엔진 소리는 안 날 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면 희열이 오른다는 말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자동차가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부릉부릉 내면서 추월하는 것을 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힘 있고 좋은 엔진을 가진 차인지를 자랑하며 달리는 것이라고 하니,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베델 목회자가정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이런 차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지나가던지 꾸벅 꾸벅 졸다가 잠이 다 달아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문득 엔진 소리를 들으면 희열이 오른다는 그 성도님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교회 출석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시 교회에 오시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희열’과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 저에게 자동차 붕붕거리는 소리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 들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떤 엔진인지, 어떤 차량인지 심지어 무슨 문제가 있는 지도 감지한다고 합니다. 복음은 어쩌면 아주 잘 만든 자동차의 엔진 소리와도 같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문외한들에게는 여전히 귀를 막아야 하는 잡음처럼 들리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희열을 주는 소리인 것처럼 복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의 희열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양날 선 검과 같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수술칼 이기도하지만, 살을 베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칼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소통의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자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도 어쩌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소망 속에 능력을 맛본 자도 있겠지만, 속으로 ‘노 맨’만 외치다가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늘 졸리지만 하던 주일 설교가 어느 날 갑자기 귀에 쑥쑥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소음처럼 들리던 자동차 엔진 소리가 기쁨을 주는 소리로 변할 수 있듯이, 복음 역시 꿀과 송이꿀 보다 더 단 말씀으로 들리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주여, 듣는 귀를 주옵소서!

Once I was coming back from a couple’s retreat, one of attendees said that he feels ecstatic when he hears sound of car engine. I remember thinking that ‘there are some unusual people’. Until then, I thought that car engine sound came through the muffler. It must be more of a quiet noise. Long time ago, I used to drive a car with a hole in the muffler. It used to make so much noise that it was nicknamed a farting car. So, I used to think that quieter the engine sounds, the better it is. Obviously, I had questions about the person who felt ecstatic from car engine sounds.

Sometimes we see cars overtaking other cars, making loud engine noises. That sound is meant to show off the strength of car engine. That is very strange to me. I saw such a car on my way back from Bethel pastoral staff’s retreat. It was so loud that it woke me up. At that moment, I remembered this church member who felt ecstatic from hearing engine sounds. I don’t think he attends our church regularly anymore. But when he did come to church in the past, I remember how he used to confess that he felt ‘bliss’ and ‘joy’ when he hears gospel messages.

To me, a car engine sound is just a noise. But some professionals, by simply hearing the car engine sound, know what type of engine it is, what kind of vehicle it is... even detect what problem it has. Gospel is like a car engine sound from a well-made car. To strangers, it’s noise that they don’t want to hear. But for those who know what they are hearing, it brings much joy. This is how gospel is. To some, it pains them to hear. To some others, it is the message of joy of life. That is why gospel is like a double-edged sword. It is like a surgical knife that saves lives. But it is also a knife that cuts away our flesh and brings pain. That is what the gospel is about.

Responses of people listening to the same message from same preacher are probably one of two ways. Some will say amen and experience grace. They feel able in the hope of life. Others will only shout quietly ‘no-amen’ and quickly leave the sanctuary. Some days, you blissfully receive the Lord’s Day message that used to only make you sleepy. Like car engine sound that can change into sound that brings joy, there will be a day when gospel reaches your ears as words sweeter than honey. Lord, give us ears to hear!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성곽 없는 성읍

(속 2:1-13)

적용하기



1.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는 느낀 상황이 최근에 있으셨나요?(참고/ 뱀후 3:9)

2. 측량줄을 든 자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측량줄을 나에 대하여 들었다면 어디를 측량하실 것 같습니까? 무너져 있는 성곽의 환상이 보이듯 나에게 무너져 있는 성곽은 무엇일까요?(1-5절)

3. 하나님은 이 환상을 세 가지로 적용하십니다. 하나씩 짚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 1) _____ (6-9절)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할까요?(8절, 참고/시 2:12)

우리에게 있는 '세속화' 현상은 무엇일까요?
 - 2) _____ (10-12절)

나에게 하나님께 부를 레퍼토리는 무엇인가요? (참고/속 9:9; 계 18:20)
 - 3) _____ (13절)

노래하던 우리도 잠잠해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다가오나요? (참고/ 막 4:39, 시 46:10)

■ 적용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찬204/새288장),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인터뷰 - 2023년 신입 사역권사

기도 굴림이로

질문: 1.임직 소감 2.가족 사항 3.맡겨진 사역 4.좋아하는 성경 구절



곽영지 권사

1.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역 현장에서 항상 화평케 하는 자로 순종하겠습니다.

- 2. 남편 이해원 집사와 2녀(채림, 효림)
- 3. 식당사역
- 4. 여호수아 1장 9절



김미연 권사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랄 수

- 없는 중에 내밀어 주신 사랑의 손길 잊지 않겠습니다. 맡겨 주신 사역을 감사함으로 귀한 동역자들과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 2. 남편 김육진 집사와 1남(수빈) 2녀(수정, 수진)
- 3. 식당사역
- 4. 요한복음 15장 12절



김선경 권사

1. 조금은 나태해지고 있던 저에게 권사직분을 허락하심은 한결같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

- 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 2. 남편 이양수 집사와 2녀(Hannah, Euna)
- 3. 식당사역
- 4. 로마서 5장 8절



김성지 권사

1.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겸손히 또한 잠잠히, 기쁨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섬

- 기기를 소망합니다.
- 2. 남편 김교식 장로와 1녀(Kaitlyn)
- 3. 식당사역
- 4. 시편 18편 1절



김순희 권사

1. 사역권사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기에 더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공동체를 함께

- 섬기겠습니다.
- 2. 남편 최춘석 집사와 1남(Samuel), 1녀(Joy)
- 3. 식당사역
- 4. 이사야 41장 10절



김영아 권사

1.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 2. 남편 김병수 집사와 1녀(현지)
- 3. 식당사역
- 4. 빌립보서 4장 6절



김진희 권사

1. 부족한 제게 이렇게 귀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약할때

- 강함주시는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 2. 남편 강재형 집사와 2녀(연진, 연수)
- 3. 식당 사역
- 4. 에베소서 6장 18절



박선희 권사

1.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있었습니.

- 2. 남편 김효선 집사와 2남(동규, 민규)
- 3. 식당 사역
- 4. 베드로전서 5장 7절



박성혜 권사

1. 부족한 자에게 직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에 늘 함께

하시며 이끌어주시길 믿습니다. 주님이 주

시는 지혜와 성실, 진실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더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 2. 남편 정광목 장로와 2남(Daniel, Eric) 1녀(Joyce)
- 3. 식당사역
- 4. 미가 6장 8절



박영미 권사

1. 베델의 일꾼으로 언제나 수고하시는 사역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던 제가 바로 그 섬김의 자리

- 에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2. 남편 김종곤 집사와 1남(Sammy)
- 3. 식당 사역
- 4. 욥기 23장 10절



박정화 권사

1. 권사라는 직분이 부담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은 임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 2. 남편 서덕령 집사와 1남(동하) 2녀(예나, 예원)
- 3. 식당사역
- 4. 사도행전 16장 31절



박현선 권사

1. 권사가 되고 보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 고 귀한지 마음 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맡은 직분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2. 남편 박성남 집사와 2 남 (David, Joshua) 1녀 (Elizabeth)
- 3. 주일 시니어 사역, MIT 사역
- 4. 욥기 23장 10절



박혜성 권사

1.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만 온전히 섬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직분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2. 남편 허준수 집사와 1남(태현), 1녀(세정)
3. 식당사역
4. 시편 1장 1-3절



송미선 권사

1.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2. 남편 최동주 집사
3. 금다식(금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식사제공 사역)
4. 시편 119 편 105절



안경자 권사

1. 올 한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기뻐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 다가가겠습니다.
2. 남편 박상범 집사와 2남(용준, 형준)
 3. 식당 사역
 4. 이사야 58장 11절



여은희 권사

1.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있는 그 곳에

- 말씀 과 순종 하는 마음으로 항상 같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 남편 여흥평 집사와 1남(평화) 1녀(수정)
 3. 2부 예배팀
 4. 고린도후서 12장 9절



원현정 권사

1. 자격없고 연약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저를 사 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

- 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겠습니다.
2. 남편 박경학 성도와 1남(상호) 1녀(정원)
 3. 식당사역
 4. 시편 116편 1-2절



우선숙 권사

1. 두렵고 떨리는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 (예석, 보석)
3. 식당사역
 4.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윤정 권사

1. 귀한 직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무슨 일에도

- 기쁘게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남편 박기홍 집사와 1남(준성)
 3. 식당사역
 4. 누가복음 8장 15절



장은실 권사

1. 올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주방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

- 다. 서로 마음이 하나될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께만 칭찬받는 청지기로, 항상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2. 남편 장문권 성도와 1남(대환) 2녀(리나, 유경)
 3. 식당사역
 4. 로마서 8장 28절



정영숙 권사

1. 맡겨주신 자리에서 향아 리에 물을 채우는 성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 (하은, 다은)
3. 식당사역
 4. 요한복음 15장 5절



조윤미 권사

1.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 되고 가장 작은 자에게 임 하실 주님을 만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부르신 자리에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남편 김응진 집사와 1남(로이), 1녀(하이디)
3. 주일 시니어 사역, MIT 사역
4. 이사야 40장 31절



코바야시 지나 권사

1. 자격은 1도 없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아바 아버지

- 지의 기적과 같은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2. 남편 Takashi Kobayashi 집사와 1녀 (Lauren)
 3. 식당 사역
 4.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황성희 권사

1.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과 연합할 수 있

- 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2. 남편 황미동 집사
 3. 금다식 (금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식사제공 사역)
 4. 시편 18편 1절



황연주 권사

1. 부족하기에 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섬기며

- 기도 굴림이가 되는 감동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남편 황사균 집사와 1남(종원), 1녀(예린)
 3. 식당 사역
 4. 이사야 43장1절



영어 중등부(BYM Jr.) - 수련회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



그동안 갔던 수련회 중 이번 겨울 수련회가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캠프파이어, 연극 등 모든 순간이 즐겁고 은혜로웠지만 그중에서도 매일 저녁 드렸던 찬양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찬양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못할 정도의 울음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울며 기도한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 없는 깊은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정도 단단해져 감을 느꼈습니다.

Chloe Byun(7학년)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수련회 주제인 'Flow'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렀던 시간이었습니다. 무덤덤하고 메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로 가득 채워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과 말씀, 뜨겁게 기도한 예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소그룹에서 함께 한 묵상 나눔과 모듬 연극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와서도 'Deep Cries Out' 찬양을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I've got a river of living water. A fountain that never will run dry!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일예배를 기대하고, 매일 하기는 힘들더라도 QT를 꾸준히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Andy Kim(8학년)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자랐음을 느낍니다. 저는 새해를 깨끗한 심령으로 시작하기 위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진심으로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저의 마음이 깨끗해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더욱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잠자는 불편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에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수련회의 주제였던 'Flow'를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고, 저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을 얻었고, 은혜의 흐름에 저를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Lucia Kim(7학년)

영어 고등부(BYM Hi.) - 수련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매년 수련회를 기다려왔지만 올해는 제 문제들로부터 피하려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친구, 신앙을 저울질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BYM 공동체가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보통 주일에는 친구들과 떠돌고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수련회에서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친구들과 진심으로 통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자께서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어붙을 듯 추운 날씨였지만, 친구들과 함께 계임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동체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는 것이 아쉬웠고, 다시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숙제 걱정 없이 하나님과 교회 친구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

지만 내가 혼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과 손잡고 직면할 힘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겨울방학 최고의 시간이었고 이러한 시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다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윤지후(10학년)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다시 하나님을 일 순위에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학교생활이 바빠지면서 저도 모르게 학업, 친구, 대학 입학 등이 우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러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녁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의미하는 'Soli Deo Gloria'라는 주제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의 간증과 마지막 기도의 밤을 통해, 문제없다고 믿었던 하나님과 저의 관

계에 구멍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현재에 감사하며 앞으로 많은 축복을 바라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하셔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매일 큐티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일 순위가 될 줄을 한해가 기대됩니다.

Anna Cho(10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살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준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베델 기도 학교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기대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굴리기를 통해 더욱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학교란 개인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소그룹 안에서 함께 배우고 실습하며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아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기도학교에 꼭 참여하셔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 기도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분
 -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제자 된 삶을 살기 원하는 분
-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 동참할 특권과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기도학교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론과 실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힐 뿐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기도를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중보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주일예배를 비롯하여 2023 비전 Always Be There에 따른 여러 사역,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중보 기도자로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분을 베델교회 기도학교로 초대합니다.

- ▶ 일정/장소: 1월 26일-5월 18일 (총 16주), 유년부실
- ▶ 강의와 세미나: 1월 26일(목), 27일(금) 오후 6시 30분 (간단한 식사 제공)
- ▶ 접수 기간 및 방법: 1월 8일(주일)-1월 22일(주일)/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 ▶ 강사: 이충경 목사, 김홍식 목사, 박성권 목사, 한순고 전도사
- ▶ 준비물/회비: 성경책과 필기구(당일 필기구 비치), 20불(식사, 소책자 포함)
- ▶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prayer@bkc.org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월)	1/29:	①부-정형근	②부-송석원	③부-김도석	④부-허세훈
	2/5:	①부-정광목	②부-황세현	③부-이상노	④부-박제인
	2/12:	①부-김광영	②부-오세영	③부-김문경	④부-박찬미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2월) | 1/28: 이종호 2/4: 이희정 2/11: 장호준 2/18: 정봉화

강단꽃(1,2월) | 1/22: 임명우, 최호경 1/29: 김영신, 장호준 2/5: 김현준, 오철, 허광훈 2/12: 김형일, 이도원, 전해나, 정명희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홍정이 다음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강지원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베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I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MOD(Ministry Opportunity Day, 사역 박람회)** 오늘(22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베델교회 사역팀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 사역을 소개하고, 2023년 베델의 표어처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곳, "거기에 늘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는 사역 박람회를 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월 22일(주일) 1부 예배 후부터 3부 예배 후까지, 본당 앞 플라자
 문의: 유형석 집사 (949)533-4132

◆ **2023년 미션의 날** 다음 주일은 '미션의 날'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단기 선교, 선교 헌금 및 선교 기도 작성의 시간을 갖게 되며, 아울러 2023년에 펼쳐질 베델의 단기 선교를 본당 앞 부스에서 선교지별로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교 헌신 작성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김홍식 목사 (949)394-5320
 *미션의 날 준비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1월 23일(월)-27일(금)까지 저녁 9시에 Zoom으로 있습니다. 선교소위원회와 각 나라 팀장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 **베델 수요일예배** 주성필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시리즈 '오늘 나를 비추는 사사기가 은혜 가운데 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베델 기도학교 모집**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기도 용사로 쓰임 받고자 하시는 기도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7번 참모)
 기간: 1월 26일(목)-5월 18일(목), 16주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오늘(22일)까지,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prayer@bkc.org

◆ **예살 연합 수양회** 예살 청년부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주제로 연합 수양회를 갖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월 27일(금)-1월 29일(주일), Alpine Retreat and Camp
 강사: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교회학교 영문 QTin**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전 연령을 위한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초등부 (2, 3부 교사 & 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소망부 토요일학교 교사 모집** 소망부 토요일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시: 2월 4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12주간,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장소/문의: 조이채플,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영어 중등부(BYM Jr.) Movie Fellowship** BYM 중등부가 영화 'Jesus Revolution'을 영화관에서 관람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신청 안내: 2월 24일(금), Google Forms로 1월 29일(주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 **AWANA 봉학기 등록** 성경암송을 통해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팀워크를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으로 훈련시키는 AWANA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교사와 TA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봉학기 기간: 3월 10일(금)-6월 2일(금) 매주 금요일 3개월간, 오후 7시-9시
 교사 등록 기간: 1월 22일(주일)-2월 12일(주일)
 학생 등록 기간/대상: 2월 12일(주일)-2월 26일(주일), K-5학년
 문의: 이준호 집사 (949)859-5233, awana@bkc.org

◆ **베델워십 단원 모집 및 오디션** 예배의 말씀을 담은 찬양으로 세워나가는 베델워십에서 함께 찬양 사역을 해 나갈 단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베델교회 세례교인
 분야: 싱어, 각종 모든악기, 워십댄스(트랜디한 댄스), 자막 등
 모집 일시: 1월 22일(주일)-2월 5일(주일)
 문의: 김연조 집사 (714)333-6724,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베델 콰이어 & 오케스트라 모집** 1부 예배를 섬기는 베델 콰이어 &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중 연습은 금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더욱 풍성하고 힘있는 콰이어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희영 권사 (949)478-9487

◆ **결산 총회 안내** 2월 4일(토) 험시바 기도회 후, 2022년 결산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 **큐티인 간증문 공모** 코비드가 한창이던 때, 베델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시작한 큐티의 열매를 온 성도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며 누린 은혜의 간증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채택된 간증문은 주보에 실리며, 다음 호 큐티인을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 박은혜 권사 (949)910-0327, bethelnews@bkc.org

◆ **축하해 주세요**
 최문혁 장로/최영숙 권사의 아들 Michael 형제와 Eunice 자매의 결혼식이 1월 28일(토) 애너하임에서 있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희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이지영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조명한 권사, 최 신 권사, 허성욱 집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RETURN & REBUILD (4)

A City Without Walls (Zech 2:1-13)

1. Was there a recent incident that made you feel that God is really slow in coming? (Ref: 2Pet 3:9)

Apply to Life



2. A man with a measuring line is about to measure Jerusalem. Perhaps, if God is holding a measuring line on me, what will He measure? Like the vision of torn down walls, what is your wall that has been torn down? (vv.1-5)

3. God applies this vision in three ways. Let's examine each one and apply them in our lives.

1) _____ (vv.6-9)

Who do we need to avoid? (v.8, Ref: Ps 2:12)

What has been 'secularized' in us?

2) _____ (vv.10-12)

What is our repertoire to sing to God?(Ref: Ze 9:9; Rev 18:20)

3) _____ (v.13)

There will come a time when we must stop singing. What is that time? (Ref: Mk 4:39, Ps 46:10)